



PAJU

**09.29
-10.01**

EDITOR



파주 에디터스쿨 2021

SCHOOL

THE 2ND SEMESTER EDITOR PLATFORM GUIDE
에디터 플랫폼 가이드

TIMETABLE

9월 29일 수요일			
09:50 - 10:00		개회식	
10:00 - 11:20	강연 1	콘텐츠의 시대, 출판인은 '플랫폼'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	김선욱 다산북스 뉴미디어팀장
쉬는 시간 (20분)			
11:40 - 13:00	강연 2	'읽기'와 '잇기' 사이에서 뉴스레터 보내는 마음	박혜강 애그브렉 발행인

9월 30일 목요일			
10:00 - 11:20	강연 3	플랫폼 시대의 종이잡지 편집하기	신새벽 민음사 편집부 논픽션팀 과장 최지인 문학과지성사 편집1부 편집장
쉬는 시간 (20분)			
11:40 - 13:00	강연 4	북클럽, 우리들의 정서적 안전망	정현주 서점 리스본 & 포르투 대표

10월 1일 금요일			
10:00 - 11:30	특별강연	어느 콘텐츠 매니저의 플라이휠	손현 토스 콘텐츠팀 매니저
점심시간 (90분)			
13:00 - 15:00	포럼	패널 김영수 문학동네 문학3팀 편집부 과장 이연대 스리체어스 CEO & Founder 이화진 (하인플루언셜 윌라 오디오북 콘텐츠팀 부장) 사회자 홍순철 BC 에이전시 대표, 북칼럼니스트	

OFFLINE	경기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ONLINE	줌(Zoom)
참가 신청	www.pajubookcity.org

LECTURE

LECTURE

1

콘텐츠의 시대, 출판인은 ‘플랫폼’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

요즘 거의 모든 출판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적절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찾는 일입니다. 편집자부터 마케터, 홍보 담당자까지 우리 책에 꼭 맞는 콘텐츠 광고를 만들어줄 채널을 찾느라 혈안이죠. 그런데 그 좋은 채널을 직접 소유하려는 출판사는 이상하리만큼 적습니다. 물론 많은 출판사들이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죠. 신간의 흥망을 인플루언서들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판인이 ‘플랫폼’과 ‘채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알팍한 경험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욱
다산북스 뉴미디어팀장
다산북스 뉴미디어팀에서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소행성책방>, 유튜브 채널 <교양만두> 개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읽기’와 ‘잇기’ 사이에서 뉴스레터 보내는 마음

1년 6개월 전, 독자와 일대일 관계를 맺기 좋은 뉴스레터의 장점에 힘입어 그간 신문 주말판이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야 알 수 있던 신간 정보를 큐레이션해 메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뉴스레터와 신간이 만났을 때 어떤 ‘읽기’ 실험이 가능할까?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을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뉴스레터 <에그브레이크(Egg Break)>를 발행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나눠보고자 한다.

박혜강
에그브레이크 발행인
한 분야에 정통한 무림 고수를 꿈꿨지만 방랑벽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와 디지털 사이를 오가며 읽고 듣고 써왔다. 속한 분야와 직함은 저마다 달라도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왔으며, 지금은 브랜드 다큐멘터리 잡지를 만드는 곳에서 잡지와 뉴스레터 사이를 오가며 에디터로 일한다.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하는 뉴스레터 <에그브레이크>를 좋아서 시작했다가 1년 6개월째 발행하고 있다.



플랫폼 시대의 종이잡지 편집하기

출판계에서 플랫폼이란 무엇일까? 다양한 사람들이 가치를 교환한다는 의미의 플랫폼은 오늘날 출판계에서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한편, 종이책이 주를 이루는 산업 특성상 구체적으로 말하기란 극히 모호하기도 하다. ‘책보다 쉽고 논문보다 짧은 인문학’을 내걸고 학계의 논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인문잡지 «한편»의 편집자로서 종이잡지에서 비대면 세미나, 뉴스레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출판계에서 실현 가능한 플랫폼의 형식과 그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신세벽

민음사 편집부 논픽션팀 과장

9년 차 출판편집자. 민음사 편집부에서 인문사회 분야 단행본과 인문잡지 «한편»을 만들고 있다. «나와 타자들» «조울의 시간» «조선잡사» 등을 편집했다.



지난 11년간 «문학과사회»의 편집 보조에서 책임편집자가 되기까지 변화한 역할과 현재 편집동인들이 함께 나누는 고민을 소개한다. 더욱이 2016년 혁신호를 발행하면서 특집 코너를 분리한 별권 «문학과사회 하이픈»은 올해로 창간 5주년을 맞이한다. «문학과사회»가 당면한 과제, 특히 독립된 편집동인의 정체성과 문학적 시각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문학잡지이면서도 창작자/필자와 독자를 잇는 플랫폼이기에 생겨나는 다양한 요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최지인

문학과지성사 편집1부 편집장

문학과지성사 편집1부에서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2010년 입사하여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를 11년째 다니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일을 쉬고 옥스퍼드 브룩스대에서 출판미디어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북클럽, 우리들의 정서적 안전망

서점 북클럽을 오래 운영하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세상은 너무 거칠고 가혹한데 여기 오면 곁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일주일 버틸 힘을 얻어요”였습니다. 우리 서점에서는 북클럽을 ‘정서적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북클럽이 안전망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좋은 사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좋은 읽을거리입니다. 책으로 시작하여 계속 책을 향해 가야 합니다. 책을 통해 사람을 모을 뿐, 사람을 모으기 위해 책을 쓰지 않아야 북클럽이 오래도록 건강한 정서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

서점 리스본 & 포르투 대표

1997년부터 KBS 라디오 방송작가로 일했다. «옥주현의 별이 빛나는 밤에» «홍진경의 가요광장» «이현우의 음악앨범» «최강희의 야간비행»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 등을 만들었다. 2015년 작업실 한편에서 서점 일을 시작했고, 2017년 서점 리스본을 만들면서 라디오 방송작가를 그만두었다. 2019년에는 2호점 서점 리스본&포르투를 열었다. «그래도, 사랑» «다시, 사랑»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등의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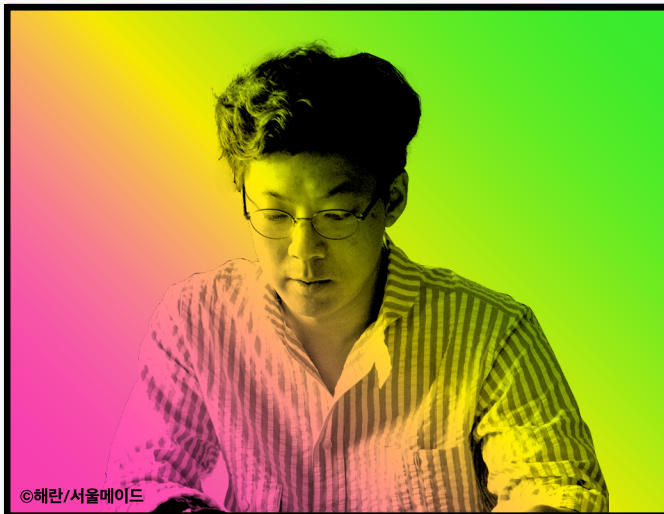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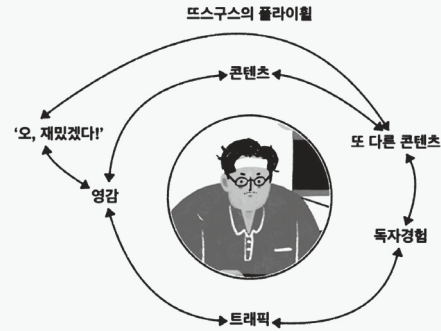
특별강연 어느 콘텐츠 매니저의 플라이휠

얼마 전 회사 직함이 에디터에서 콘텐츠 매니저로 바뀌었습니다. 콘텐츠 매니저는 뭘 관리하고 뭘 해야 할까요? 좀 더 고민해보니 이 직함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콘텐츠(플랫폼) 매니저로서 다면시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지,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떤지 들려드릴게요.

손현

토스 콘텐츠팀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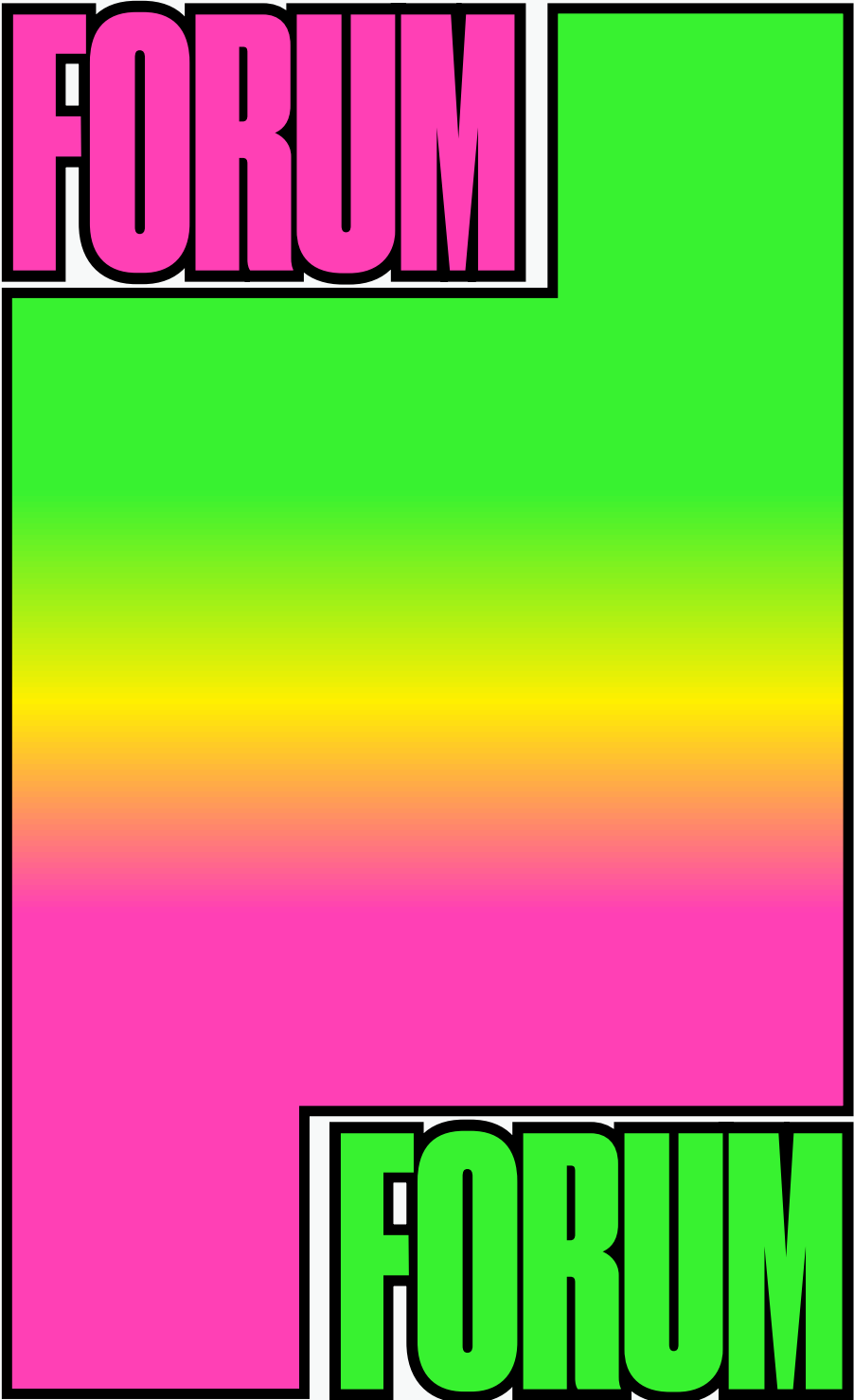
작가이자 토스 콘텐츠팀 매니저. 서울에서 태어나 건축을 공부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공장을 짓다가 PUBLY, 매거진 B를 거쳐 지금은 토스에서 글을 짓고 있다.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해란/서울메이드

플랫폼이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해진 지금, 출판산업 역시 책의 물성적 경계를 넘어 SNS, 유튜브, 뉴스레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독자들을 모으고 연결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쓰는 이와 읽는 이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상생의 독서 생태계를 만들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건강하고 재미있는 읽기 문화를 만들어내며 텍스트 콘텐츠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마다 의미, 형태, 목적을 달리하는 동시대 콘텐츠 플랫폼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나아가 입체화하는 쓰기과 읽기 문화를 고민해본다.



패널

김영수

문학동네 문학3팀 편집부 과장

이연대

스리체어스 CEO & Founder

미디어 스타트업 스리체어스(Threechairs)에서 일하고 있다.
‘책처럼 깊이 있게, 뉴스처럼 빠르게’, 지금 깊이 읽어야 할 주제를 다루는 ‘북저널리즘’을 만들고 있다.

이화진

(주)인플루엔셜 윌라 오디오북 콘텐츠팀 부장

출판사에서 종이책 기획·편집자로, 교보문고에서 전자책 MD로,
윌라에서 오디오북 총괄 기획·운영자로 일하고 있다.

現 (주)인플루엔셜 윌라 오디오북기획팀 총괄 부장

(주)에브리웨이 eBook팀 차장

(주)교보문고 이비즈니스지원본부 eBook사업팀 선임 MD

(주)대교 북스캔 상품기획팀 총괄 MD

베텔스만 코리아 상품기획팀 MD

사회자

홍순철

BC 에이전시 대표, 북칼럼니스트

1999년 저작권 에이전트로 출판계에 입문해 20년간 저작권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BC 에이전시 대표로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국내외에 소개했다. 북칼럼니스트로 여러 방송매체에
출연하고 있으며, «한겨레»와 «한국경제신문» 등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패널 김영수



패널 이연대



패널 이화진



사회자 홍순철

